

# '만법이 공' 알면 죄업 사라져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1>

지난 주에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성불할 수 있다. 고 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도과를 증득한 뒤 사람들에게 출가를 권했다. "자매여, 왜 출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출가하겠습니까? 출가를 하면 계를 받게 되고 만약 계를 범하면 곧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 무서워서 출가할 수 없습니다." 연화색 비구니가 다시 말했다. "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를 받지 않는다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조금도 없지만, 만약 계를 받고 난 뒤에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보를 받고 나면 계를 받은 인연으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전세에 음녀였을 때 장난삼아 가사를 입고 춤을 추었는데 그 공덕으로 이렇게 출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의 인연으로 항상 계를 범하였고, 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

에 떨어졌지만,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 다하자 이 세상에서 한 번의 인연이고 시작한 셈이다. 일단 계를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계 생활뿐이다. 그러나 나약한 신념으로는 계를 굳건히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계를 깨트리거나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순수하고 청정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참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계율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한 것이다. 참회법에는 작법·취상·무생참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참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법참회'는 율장에 나타난 작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전을 향하여 몸으로는 예배를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관을 하는 삼업으로 법도에 따라

때까지 하는 참회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알게 되면 곧 죄가 소멸되는 것이다. 『법화경』이나 『대비경』, 『법화경』 등에서 말하는 온갖 행법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참회로 근본 중죄도 소멸하고 정계(淨戒)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셋째 '무생참회'는 마음으로

## 예불·염불하며 허물 드러내 고백해야 부처님 상호 관하고 참회해도 죄 소멸

### 오계상경-5

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청정하고 복된 삶을 위한 하나의 원인이자 시작인 셈이다. 일단 계를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계 생활뿐이다. 그러나 나약한 신념으로는 계를 굳건히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계를 깨트리거나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순수하고 청정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참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계율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자신이 저지른 허물을 드러내 고백하며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취상참회'는 '관상참회'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고 죄를 소멸하는 참회법이다. 즉, 선정에 들어 바른 마음으로 참회하는 생각을 범으로써 도량 중에 혹 부처님이 오셔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시거나, 광명성이 나타남을 보거나,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거나, 꿈에 여러 가지 상서로운 현상을 보거나,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생도 멀도 없는 실상의 이치를 관하여 죄장을 없애는 참회법이다. 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서 무생무명의 실상을 관하는데, 온갖 죄업이 모두 한 생각이 심성을 요달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만약 심성이 본래 공적하여 죄든 복이든 실상이 없어서 일체법이 모두 공적함을 요달하면 무명번뇌도 여의게 되고 죄도 역시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참회법은 『금광명경 문구기』 권3에서 말하고 있는데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참불자"

## 부

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날, 많은 비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수행자를 찾아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를 만나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행자를 존경하는 사람과 존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존경심을 갖는 사람이 낫습니다. 수행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운대도 경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경을 듣는 사람 중에 일심으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심으로 경을 듣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일심으로 경을 듣는 사람 중에도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도 깊이 뜻을 관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뜻을 깊이 관할하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법의 깊은 뜻을 관할하는 사람 가운데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의 깊은 뜻을 관할하면서도 자신과 이웃, 사회와 인류를 생각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합니다."

재일 또는 각종 화업산림, 보살계산림 법회 등이 열리면 절이나 포교당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이러한 불자들을 자제히 들여다보면 기도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큰절이지만 법당이 좁아 기도할 자리가 부족한 경우,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라다툼을 하고 싶으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 법회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밥을 먹으려고 후원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자들을 볼 때면 무엇을 위한 기도이고 무엇 때문에 법문을 듣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복만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출가하여 오랫동안 지냈지만 일반 재가 불자들이 법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는 많

## 법회중계

### 범어사

(2000년 3월 13일)



성오스님  
(부산 범어사 주지)

## 존경하는 수행자 찾아 일심으로 가르침 듣고 사회위해 보살행 펴자

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경우도 입체적이고 회향식에만 참석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불법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법을 이야기 할 때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말합니다. 이 선법계의 부처님 말씀에는 말씀과 삶과 실천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보살행으로 사회에 회향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이 불자들이 대하여 질문하고 일심으로 듣고, 듣고는 그 뜻을 깊이 관할하여 마침내는 자신과 사회를 위해 보살행을 하는 불자가 되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 작가·화가등 지식인층 불교에 매료

## 세계의 불교학 <11> 러시아 ②

러시아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자 러시아 정교와 친(親) 정교적 사상가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두 진영, 즉 친불교적 작가와 화가들과 정교 신부들은 드디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연방(구 소련)에 자리를 내어주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한층 고조되었다.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불교학자 세르바츠코이(F.L. Shcherbatskoy · 1869~1942)는 이때 러시아 불교학계의 전면에 나서, 두 진영의 논쟁을 평정하기에 이른다. 그는 범어, 티베트 등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철학 속에서 불교 교학의 위치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불교의 본질은 신앙 이라기보다 철학'이라는 시각에서 불교를 이해하였고, 또 인도철학 그리고 근·현대 서양에서 나타난 주관적 유심론과의 근본적 연관성을 모색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대각(大覺)과 베르케송의 직

관의 순간 △불교의 일반과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엔트로피(entropy)론 △연기법과 서구 수학의 약수 개념 △중관학파의 공(空) 사상과 브래들리의 객관적 관념론 △공수의 법신론과 스피노자의 법신론 등을 주로 비교 연구하였는데, "모든 이론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결론지었다.

후대 학자들은 세르바츠코이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불교철학을 지나치게 유럽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불교에 대한 그의 애착과 탁월한 이해가 러시아 불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외에도 니콜라이 레리호(N.I. Roerikh · 1874~1947), 로젠베르크(O.O. Rozenberg · 1888~1919) 등도 20세기 전반까지 러시아 지식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러시아 불교학 발전에 일조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불교는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

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구 소련이, 비(非)러시아계 민족들에게 러시아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민족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부터 소련은 불교의 태동지인 북아시아 지역의 불교사원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 세르바츠코이 '러' 불교철학 정립 볼셰비키후 사원폐쇄·학자 탄압

1937년에 이르러 이 지역에서 문을 닫지 않은 사원이 없었고, 이때까지 남아 있었던 9백여 명의 스님들은 환속하거나 아니면 총살당했다. 또한 1940년대에는 갈트 지역에서도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러시아 불교학 역시 불교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세계 석학들과 서신 왕래를 하고 있었던 세르바츠코이를 부르주아적



◇갈트지역 티베트불교 스님과 학단을 나누고 있는 러시아 불교학자.

반동 학자로 규박하였지만, 세계 불교학계의 여론을 의식해 감히 구금·총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세르바츠코이가 이끌었던 '인도·티베트 연구실'은 폐쇄되었고, 이 연구실에서 발견되었던 '불교전서(Bibliotheca Buddhica)' 시리즈도 폐간되었다. 또 세르바츠코이 학파를 구성하였던 그의 제자인 소장 학자들은 대부분 '간첩 혐의'로 극형을 받았는데, 세르바츠코이에게서 '나보다

더 위대한 학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보스트리코프(A.I. Vostrikov · 1904~1937)를 비롯해 발디인(B.B. Baradyn · 1878~1943), 두반스키(M.I. Tubyanskiy · 1893~1943), 세미초프(B.V. Semichov · 1900~1981) 등이 그들이다. 사실상 스탈린이 죽고 후루시초프가 소련의 정권을 장악하면서 제한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1950년대 중반까지도 구 소련에서의 불교학은 학문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주장하는 불교가 인권을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전체주의적 체계와 결코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같아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상을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효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복제 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식초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053)655-2227 (011)808-8880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대구여래원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림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원의 자급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외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하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입원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뢰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 불로화정 본포